

요한복음 23번째 말씀

예수께서 38년 된 중풍병을 고치신 목적

요한복음 5:9b-18

전지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후 베데스다 못가를 떠나셨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을 찾아 오셨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왜 그 한 사람만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 둘째, 왜 예수님은 그 병나은 자를 다시 찾아 오셨을까? 이 답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 왜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피하셨을까?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피하신 목적은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라고 하였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모두 병자들이다.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이 38년된 병자를 낫게 해 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며 병을 고쳐 달라고 달려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병자 고치느라고 그 본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가복음 1: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낫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전도 곧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병을 다 낫게 해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생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장애로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살다가 이 생애를 마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 반드시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성공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을 앓고 살았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 이 땅에서 탄식의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롬 8:23), 치유는 필연이 아니라 예외이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탄식과 고통은 끝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으나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 갔다(눅 16:22).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다 해결 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 고

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신 것이 아니다.

II. 왜 예수님은 그 병나은 자를 찾아 오셨을까?

예수님은 병나은 자를 다시 찾아 오셨다. 다시 찾아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떠나신 것은 단지 병만 고쳐 주신 것으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친히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셨다. 병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병고침을 받은 자는 병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은혜도 있고 자유 방임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병고침을 주신 목적은 마음 대로 죄를 짓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다. 만약에 죄를 계속 짓고 산다면 38년동안 병을 앓고 사는 고통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38년 동안 꿈쩍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끔찍한 고통은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그보다도 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돌아서서 이 선물을 조롱하거나 그의 건강을 우상으로 만들고 죄를 그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이다. 죄는 최종 심판이 일어날 “더 나쁜 일”(14절)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죽은 후의 심판을 의미한 것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끔찍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보다 더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본장 28-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 간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더러는 죽는날까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나고야 만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만 성경은 재림은 속히 임한다고 하였다.

베드로후서 3:9-13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날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지 않는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라고 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였다.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며 산다. 그래서 안개와 같이 잠깐 왔는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
지 않고 산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사람 38년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그에게 사랑과 능력을
보여 주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목적이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 하신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큰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편 130: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도 주를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일인줄 믿
는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힘써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자.